

“명실상부 亞문화교류 중심기관 위상 확립”

辛丑年 새해설계

박태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직무대리

‘특별법’ 대응...새 운영체제 맞는 조직·업무 재정비 중요 과제
‘차별화된 브랜드’ 문화허브 기능강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지혜와 풍요, 상서로움의 상징인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광주매일신문 독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도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와 창조의 플랫폼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이끌어갈 핵심기관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지역사회와 시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박태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는 11일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ACC조직은 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법인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달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된다면 다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ACC는 무엇보다 올 한해를 중요한 해로 특별법 통과 여부에 따른 대응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전당의 운영체제 변경이 예정된 만큼 새로운 운영체제에 맞게 조직과 업무를 재정비하는 일이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명실상부 아시아문화교류 중심기관으로 위상을 명확히 하고, 전당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실험적인 문화발견소이자 아시아 문화 교류 거점으로 안착한 한 해로 자평했다. 전당은 창·제작 중심의 복합문화예술기관답게

각종 아시아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187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중 전당이 직접 기획하고 창·제작한 프로그램의 비중은 70%인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문화예술기관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소통채널 확충에 역량을 집중했다. 각종 전시와 공연, 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디지털로 제작하고 채널ACC+유통 플랫폼 메뉴를 새롭게 만들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며 문화향유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공연도 내놓아 평단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배우와 관객이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상호 소통하는 융복합 공연 ‘비버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미래형 공연의 모델을 제시하는 큰 족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당은 2021년 새해 역점사업으로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을 핵심가치로 아시아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세계적 문화예술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먼저 창·제작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콘텐츠 기획·개발을 활성화하고,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고도화, 비대면 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핵심 주제로 공연, 전시



콘텐츠를 기획중이며, 미래 기술을 결합해 전당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창·제작 거점공간의 역할을 확고히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지역을 연결하는 문화 허브로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토리 부분에선 몽골 등 참여국가 확대, 다른 장르와 협업을 통한 융복합 신규 레퍼토리를 개발해 국내외로 적극 유통시키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열린 문화전당을 실현하겠습니다. 누구나 즐기는 전당을 만들기 위해 외부시설과 실내공간을 개선해 접근성과 방문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다이 기자



1991년 조선대 미술패 회원들이 교내 바닥에 3당 아합을 작업하고있는 모습.

독재권력에 맞서 투쟁했던 ‘조선대 미술패’ 회원들 소환

21년만에 뜻깊은 회원展...14일까지 제주 부미갤러리

독재권력에 맞서 걸개그림과 민중예술로 부조리함에 저항해왔던 조선대 미술패 회원들이 21년 만에 만나 뜻 깊은 전시회를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선대 미술패 출신들은 오는 14일까지 제주 부미갤러리에서 ‘그래, 여기까지 잘왔다’는 주제로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전업작가부터 이변을 계기로 다시 붓을 든 회원까지 16인의 회원들이 참여해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조선대 미술패 활동을 했던 회원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조선대 미술패는 1984년 전정호와 이상호를 주축으로 ‘시각매체연구회’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독재타도’와 민주주의 만세’를 불렀다. 강의실에서보다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대학 실기실보다 미술패들이 모여 걸개그림을 그리는 일이 더 많았다.

이후 ‘땅굴’과 ‘개방쇠’로 개편해 후배들과 민주화 투쟁을 위해 판화, 걸개그림, 만장을 제작해왔다. 전정호와 이상호는 1987년 4학년 재학 당시 걸개그림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를 제작했다.

노동자와 농민이 미국의 성조기를 찢고 어린동자가 미국 대통령의 머리 위에 오줌을 싸는 장면이 필미가 돼 미술인 최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수감돼 고초를 겪었다.

이들은 끊임없이 현실의 부당함과 부조리, 학내민주화까지 투쟁하고 항거하며 그림과 깃발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싸웠다. 이후엔 더 늘어났지만, 당시 회원들은 50여 명 내외였으며, 그들은 청년의 시대를 지나 현재 반백의 초로의 중년들이 됐다.

1990년대 이후 학생운동 현상이 줄어들게 되면서 회원들은 흩어져 교사부터 회사원, 사업가, 전업작가, 출판업, 거리



1990년 이철규 열사 장례식 중 조선대 미술패가 제작한 걸개그림이 걸렸다.

미술가에서 농부까지 각자 자신의 길을 걸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몇 십년 동안 안부를 모르던 회원들은 치열하게 살아왔던 젊은 날 소망했던 자유국가, 민주국가,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자했던 추억이 이들을 다시 모이게 만들었다.

“그래, 여기까지 잘왔다” 전시는 당시 미술패였던 송부미 회원이 거주하던 제주도에 부미갤러리를 오픈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교집합으로 미술패 회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몇 십년동안 사장돼 있던 미술패 자료들도 대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작업일지며 회원들이 소장하고 있던 당시의 전시와 회원들의 동정을 알 수 있는 사진들까지 모두가 소중한 역사의 기록장면들을 전시회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김우성, 김원, 명미희, 문승미, 박미경, 박미용, 서동환, 송부미, 안상희, 오치근, 이상호, 이진우, 임경호, 임신영, 임헬레나, 전정호 회원들이 참여했다. /김다이 기자

플루티스트 이예린 독주회 유스퀘어 문화관 올해 첫 기획공연

14일 금호아트홀...윤효린, 하중수 협연무대로

유스퀘어 문화관이 올해 첫 기획공연으로 플루티스트 이예린의 플루트 독주회를 준비했다.

1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귀감’을 주제로 플루티스트 이예린 독주회가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 그는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 샤미나드 플루트 콘체르티노 Op. 107, 도플러 리콜레토 환상곡, 존루터 고풍모음곡 등을 선사한다. 이날 피아노는 윤효린씨, 플루트는 하중수씨가 협연자로 함께한다.

섬세한 감성과 절제된 이성이 자연스

롭게 조화를 이루는 교육자이자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는 이예린은 ‘한국의 젊은 10대 플루티스트’, ‘2012 예술의전당 아티스트’로 선발되는 등 음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2014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첫 플루트 전임 교수로 임용된 이예린은 관악 부문에서는 최초로 순수 국내파 재학생들을 최고의 국제 콩쿠르에 입상시키는 쾌거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만 14세의 나이로 홀로 프랑스로 건너간 그녀는 파리 라마르틴 고등학교에서 정식 교과 과정을 밟고, 프랑스 고등

학교 졸업장인 바칼로레아를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했고, 파리소르본 대학교에서 음악학 과정을 수료했다.

파리고등음악원(C.N.R. deParis)을 거쳐 플루트계의 최고 권위자 필립 베르놀드를 사사하며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을 만장일치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뮌헨 국립음대에서 가장 안드라스 아도리앙을 사사,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마치고 귀국해 수원시립 교향악단의 수석주자를 역임했다. 이후 KBS교향악단, 수원시향, 경기필, 충남교향악단, 청주시향, 군산시향, 포항시향, 목포시향, 프라임필, 강남심포니, KT챔버오케스트라,



플루티스트 이예린

서울타악기앙상블, 조이오브스트링스 등과의 협연을 통해 꾸준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5일 오전 11시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는 이예린의 플루트 연주회를 알리는 마스터 클래스도 열린다. 리사이틀 티켓 소지자는 무료로 입장가능하다. 문의 02-587-0209 /김다이 기자

광주매일신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우리 함께 실천해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주최: 광주매일신문

후원: LH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안내

부과일	2020년 11월 13일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 2차 위반 300만원

※ 마스크 불인정 : 망사형, 벨트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형태는 불인정

부과대상 예외자	부과대상 예외사항
만 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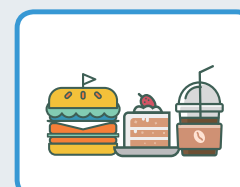
마스크 쓸 땐 이렇게 하세요



모든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마스크 밖으로
입과 코가 나오지 않도록
밀착해 착용해주세요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후에, 대화 시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